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1. 07. 2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력수급을 이유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된 것처럼
서술된 것은 사실과 다름

(7.21일 조선일보 “전력 공급 위기에 처하자 원전에 손 내민 탈원전
정부” 사설에 대한 설명)

- ◇ 코로나 선별진료소(서대문구) 일시 운영중단은 폭우에 따른 전기
안전상 이유에 따른 것으로 하계 전력수급 관리와 무관
- ◇ 7.21일 조선일보 <전력 공급 위기에 처하자 원전에 손 내민
탈원전 정부> 사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정부는 전국 공공기관에 낮 시간 교대로 냉방을 중단하도록 권고했고,
일부 코로나 선별보건소까지 전력공급 중단 우려로 일시 운영중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 명기된 선별진료소 운영중단(서대문구
보건소) 사례는 전력수급 관리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이
아닌, 폭우에 따른 전기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한 것임
-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, 7.19일 당일 폭우로 인해 운영
중단됨을 알렸으며 화요일부터 운영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
 - 해당 보건소는 야외 선별진료소(천막)에 설치된 220V 콘센트 및
케이블이 폭우로 인해 누전위험이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7.19일(월)
하루 동안 복구를 진행하였음

- 서대문구 보건소는 7.19일 16:30분경 점검을 완료하고, 7.20일 09시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음
- 또한,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의료시설, 아동·노인복지시설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상 기관이 아니며, 이러한 시설에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을 하고 있음

※ 문의: 유성우 에너지효율과장(044-203-5140) / 김현동 사무관(5141)